

국어 영역

9회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밝게 빛나는 내일의 나에게로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독서
- 문학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지와 식품의 적법한 취급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며, 이는 곧 농지법·원산지표시법·식품위생법에 의해 규율된다. 농지법은 경작지를 소유·거래·이용하는 전 과정을 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 강화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정되었다. 농지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은 농지를 자기 영농에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만 소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지자체나 학교·연구기관, 주말체험영농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면 비농업인이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경 원칙은 농지가 ㉡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농업진흥지역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에서는 무분별한 전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농지의 임대나 위탁경영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지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토지 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청과 발급 과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이용계획을 엄밀히 검증한다. 취득 후 경작 의무를 ㉢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처분명령을 어길 시 공공기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처분명령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되면 강제처분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 원산지표시법은 소비자 권익과 공정 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식당에서 판매되는 쇠고기·돼지고기·김치 등의 주요 식재료나 온라인 쇼핑몰, 배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고, 생산자는 품질 개선에 매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법에서는 거짓 표시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 한다. 예컨대 해외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이득을 꾀하거나, 표시를 ㉤ 누락하고 판매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메뉴판이나 벽보를 통해 원산지를 알리고, 거래명세서나 계약서에 원산지를 기재·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후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반복적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장 명칭을 공표하고 2년 내 거짓 표시 재적발 시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위반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 식품위생법은 식품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위생과 품질 수준을 ㉦ 엄격히 규제한다. 이 법은 식품의 제조·가공·저장·판매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과정을 규율하며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급식소 운영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식품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업원에게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한다. 법령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보관 온도 준수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금지 등 엄격한 위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무허가 영업, 허위·과장 광고, 유해 물질 혼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제재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의도적으로 유해 식품을 유통했다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된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 계획이 검증되어야 한다.
- ② 농업인이 허가받지 않고 농지를 위탁경영한다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③ 식당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산지표시의 사후 감독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 ④ 온라인 쇼핑몰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⑤ 급식소 영업자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을 시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2.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는다면 ㉣이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광범위한 관리를 도모한다.
- ③ ㉣은 ㉥과 달리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위반된다.
- ④ ㉣은 ㉥과 달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원산지를 속여 광고하면 ㉣과 ㉥ 모두에 위반된다.

3.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B 프랜차이즈 본사는 중국산 마늘을 본사 계약 농장에서 재배한 국내산 마늘로 속여 전국 직영 매장에 공급해 왔다. 각 매장은 “본사가 공급한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메뉴판에 ‘국내산 마늘’라고 거짓이 게시하였다. 그러던 중 A 매장의 마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위생 검사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S 본사가 집중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

조사 당국은 “B 본사에서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매장에 납품해 왔고, 각 매장은 사실상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셈”이라며 A 매장에 행정제재를 내렸다. A 매장의 대표는 “본사를 통해 식자재를 받았으니, 이 문제는 본사 책임이지 매장 책임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사 당국은 “매장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 ① A 매장은 본사가 제공한 식자재에 대해 원산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겠군.
- ② B 본사는 수입 마늘을 거짓 표기하여 매장에 납품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겠군.
- ③ A 매장은 행정제재에 따라 매장명이 공표되며 반복 적발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겠군.
- ④ B 본사가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 광고로 광고하였다면 마늘의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겠군.
- ⑤ 마늘의 이물질이 유해 물질이라면 B 본사의 대표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이 불가피하겠군.

4. ㉠~㉢와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높이고
- ② ㉡: 올바른
- ③ ㉢: 다하지
- ④ ㉣: 빠뜨리고
- ⑤ ㉤: 폭넓게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옆구리에서 ㉠ 아까부터
무언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 김기택, 「벽」-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뚱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빠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 질 불이 고운 사람,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 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빠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

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상을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가)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할머니’가 다른 존재와 연대하는 공간이고, ㉡는 ‘나’가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② ㉠은 ‘할머니’의 의지가 실현되는 공간이고, ㉡는 ‘나’가 다른 존재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③ ㉠은 ‘할머니’를 억압하는 변함없는 공간이고, ㉡는 ‘나’가 망각했던 대상을 그리워하는 공간이다.
- ④ ㉠은 ‘할머니’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고, ㉡는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을 보유한 공간이다.
- ⑤ ㉠은 ‘할머니’에 대한 억압이 강해지는 공간이고, ㉡는 ‘나’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의 움직임을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 ‘할머니’의 의지와 달리 ‘할머니’의 움직임은 미미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③ ㉢: ‘흰 구름’이 있었던 하늘이 깨끗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 부재하고 있는 ‘하늘’이 화자에게 희미하게 보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 화자가 ‘불이 고운 사람’에게 달려갈 ‘아침’의 긍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전동차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목격한 인물의 소외를 묘사하고 있으며, 화자와 인물이 위치한 공간은 그 특성과 배척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자연 속 공간인 청산을 통해 이상향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한다. 이때 청산은 ‘너’에 의해 완성되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하는데,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길 소망한다.

- ① (가)는 할머니가 혼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통해 일상적 공간에서 인물이 소외당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② (나)는 세상을 가리켜 ‘티끌’이 불고, ‘벌레’ 같다고 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인물의 소외를 묘사하고, (나)는 ‘너만 그리’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청산이 ‘너’에 의해 완성되는 세계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할머니가 꿈틀거림에도 ‘점점 작아지는’ 것을 통해 소외로 인한 인물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나)는 ‘불이 고운 사람’이 어찌면 만나도 질 것이란 것을 통해 이상향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승객들이 ‘빈틈을 더 세계 조이’는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현대인을 드러내고, (나)는 아침이 이르면 ‘나의 사람’이 달려와 주는 것을 통해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이상이 실현되길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